

MYUNG-WHUN CHUNG ONE KOREA ORCHESTRA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2023년 12월 31일(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

5PM Sunday, December 31, 2023

LOTTE Concert Hall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소프라노, 황수미 Sumi Hwang,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Sun-Jung Kim, Mezzo Soprano

테너, 강요셉 Yosep Kang, Tenor

바리톤, 강형규 Carlo Kang, Baritone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2023년 12월 31일 (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

5PM Sunday, December 31, 2023 at Lotte Concert Hall

베토벤 1770-1827

L. v. Beethoven

교향곡 제 9번 d단조 Op.125 '합창'

65분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빠르게, 지나치지 않게, 다소 장엄하게

II. Scherzo. Molto Vivace

스케르초. 매우 활기 있게 빠르게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매우 느리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IV. Presto - Allegro assai - Prestissimo 'Ode to Joy'

빠르게 - 아주 빠르게 '환희의 송가'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d단조 Op.125 ‘합창’

L. v.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음악학자 니콜라스 쿡 Nicholas Cook은 오늘날 ‘합창’ 교향곡이라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서양음악의 주류 레퍼토리에 포함된 모든 작품 중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이야말로 작품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희망, 두려움을 반영하고 또 굴절하는 거울로 이루어진 구조물인 것 같다. 그렇기에 초연 이래 지금까지, 9번 교향곡은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해석들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초연에서 적지 않은 혹평을 들었던 이 교향곡에 담긴 유토피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상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음악이 음악 너머의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단지 서양음악의 영역을 넘어서는 아이콘의 영역에 있는 작품이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합창’ 교향곡을 특별히 중시하며 여러 번 지휘했고, 1872년 바이로이트 극장의 초석을 놓는 날에도 이 교향곡을 연주했다. 최초의 직업 지휘자로 불리는 한스 폰 뷔로는 제야 음악회인 실베스터 Silvester와 신년을 베토벤 9번으로 축하하는 전통을 세웠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89년 크리스마스에 베를린 장벽 철거를 축하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여섯 나라 오케스트라에서 모인 연주자들로 꾸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해서 베를린에서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며 ‘환희 Freude’가 아닌 ‘자유 Freiheit’의 송가를 노래했다. 또 유럽 의회와 유럽 연

합에서도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환희의 송가’를 이용한다.

교향곡 8번을 완성한 1812년 이후, 베토벤의 개인적인 삶은 여러 모로 힘들었고, 작품도 많이 쓰지 못했다. 온갖 혼란과 고난을 뚫고 환희에 도달하는 교향곡 9번의 구조처럼, 교향곡에 성악을 더한다는 전대미문의 구상이 현실화되었던 작곡 과정 역시 험난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평생에 걸쳐 구상을 가다듬었다고 할 수 있겠다. 베토벤은 일찍부터 프리드리히 실러 Friedrich Schiller의 ‘환희의 송가’(1785)에 감동해서 노래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첫 스케치는 빈으로 이주하기도 전인 1792년 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로도 꾸준히 실러의 송가에 음악을 붙여보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1817년 런던의 필하모니 협회에서 신작 교향곡 두 곡을 의뢰하고 1822년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다. 다만 베토벤이 교향곡 9번에서 처음부터 성악이 붙은 교향곡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본질적으로 기악 작곡가였던 베토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악이 붙은 교향곡을 (9번과 짝을 이루는) 10번, 혹은 다른 교향곡으로 미루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9번 교향곡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모습이 갖추어졌고, 10번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교향곡은 1824년 2월에 완성되었고 초연은 같은 해 5월 7일에 이루어졌다. 청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베토벤은 공연에서 ‘총지휘’를 맡았다.

1악장은 A음과 E음으로 조용하게 흔들리는 화음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바순과 호른이 D음으로 '응답'하며 곧 단순한 주제가 폭발하듯 등장하는데, 여기서 많은 이들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태초의 혼돈을 연상했다. 또한 베토벤이 이전 교향곡에서도 표현했던 비극적인 영웅의 모습, 혹은 많은 고난을 겪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악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송곡 풍의 선율은 한 때 베토벤 자신도 열중했던 나폴레옹 시대의 낙관주의의 종말이겠다.

베토벤은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2악장에 스케르초를 배치했는데, 그 후 브루크너를 비롯한 여러 후배들이 이를 본받게 된다. 9번 교향곡의 스케르초는 익살스럽다기보다는 예리하고 음울하며 그 강렬한 힘과 집중력은 소나타 형식에 결들여진 푸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반면 중간에 등장하는 차분한 찬가 풍의 선율은 4악장에 등장할 '환희의 송가'가 살짝 암시한다.

2악장과 대조를 이루는 평화로운 목가 풍의 아다지오 3악장은 베토벤이 쓴 가장 송고하고 서정적인 음악 중 하나로, 지난 2세기에 걸쳐 위대한 지휘자들은 두 개의 주제가 변주곡으로 펼쳐지는 이 악장에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드러냈다. 여기서 베토벤은 이미 차갑게 죽어버린 희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영웅,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었던 것일까.

휴머니즘의 승리를 선언하는 4악장은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붙인 칸타타라고 할 만한데, 작품의 귀결점이자 단독으로도 종종 연주된다. 앞선 악장들에서 끊임 없이 암시했던 '환희'의 주제 선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세 악장의 주제 선율이 다시 제시되고 첼로

와 더블베이스가 마치 레치타티보처럼 이를 받으면서 이어지는 음악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 주제 선율로 연결되고, 베이스 독창을 필두로 독창진과 합창단이 실러의 시를 노래하며 절정에 도달한다. 본래 권주가 勸酒歌였던 실러의 시는 베토벤의 손을 거쳐 우주적인 스케일의 찬가로 바뀌었다. 하지만 베토벤은 9번 교향곡의 자매작인 <장엄미사>의 '주님의 어린양 Agnus Dei'에서 내면의 평화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만민이 서로 포옹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합창단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다음 슬쩍 끼어드는 이질적이고 어두운 음향, 독창 테너와 함께 나오는 터키 군악대 풍의 음악, 마지막 부분에서 가사와 전혀 동떨어진 트럼본과 저음 현, 남성 합창의 어두운 음향은 베토벤이 던지는 날카로운 성찰이 아닐까.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합창' 교향곡은 여전히 듣는 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환희의 송가 Ode to Joy, 4악장 중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Freude! Freude!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Freude trinken alle Wesen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오!
좀 더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
환희여! 환희여!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도다.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사랑스런 아내를 얻은 자여,
와서 함께 환호하라!
그렇다, 지상의 영혼 단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나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가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An den Brüsten der Natur;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Froh, froh, wie seine Sonnen, seine Sonnen fliegen
Froh, wie seine Sonnen, seine Sonnen fliegen
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Laufet, Brüder, eure Bahn,
Laufet, Brüder, eure Bahn,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Such' ihn überm Sternenzelt!
Über Sternen muß er wohnen.

자연의 가슴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선인도, 모든 악인도
그 장미 길을 따르노라.
그것은 우리에게 입맞춤과 포도나무,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고
벌레마저 기쁨을 선물받고,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환희여, 수많은 별들이, 행성들이 창공을 가로지르듯
환희여, 천국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따라
태양이 창공을 날아오르듯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기쁨 속에서 영웅이 승리를 향해 달려 가듯이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인의 입맞춤을 받으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백만인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의 만민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는가?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주님은 계신다.



정명훈 Myung-Whun Chung

지휘자 | Conductor

1984-1990년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87-1992년 피렌체 테아트로 코뮤날레(플로렌스 시립극장) 수석객원지휘자, 1989-1994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00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대한 애정으로 1997-2005년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하며, 수년간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밀접하게 활동해왔다. 정명훈은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나비부인><시몬 보카네그라><오텔로><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오페라 작품을 정기적으로 지휘했으며, 빈 슈타츠오퍼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리골레토><오텔로>를 지휘했다. 2012/13시즌에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이 외에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 예술 고문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 감독을 맡아 아시아에서의 음악적, 사회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왔다.

2023/24 시즌에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로열 콘서트허바우,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를 비롯하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정기적인 연주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명훈은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서트허바우, 라 스칼라 필하모닉 이외에도 런던과 파리의 주요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공연하였다.

1990년부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정명훈이 레코딩한 많은 음반들은 세계 유명 음반상을 휩쓸었다. 발매된 앨범으로는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과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녹음한 말러 <교향곡 2번, 9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그리고 베토벤 앨범 등이 있다.

정명훈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프리미오 아비아티 상'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1992년)'을 비롯하여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1995년에는 '음악의 승리상'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였다.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뎜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2017년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인 '코멘다토레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탈리아'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로훈장 2등장인 '오르디네 알 메리토 델라 레푸블리카 이탈리아나'를 받았다.



©롯데콘서트홀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2017.08.18 제 1회 정기공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협연: 조성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2018.09.02 제 2회 정기공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솔리스트: 홍주영, 양승미, 박지민, 함석현,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2019.08.18 제 3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협연: 정명훈),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2020.12.28 제 4회 정기공연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 신지아), 브람스 교향곡 4번

2021.8.24 제 5회 정기공연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협연: 신지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솔리스트: 서선영, 정수연, 존노, 심기환, 서울모테트합창단, 위너오페라합창단)

2022.10.5 제 6회 정기공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협연: 임윤찬),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2023. 12.31 제 7회 정기공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솔리스트: 황수미, 김선정, 강요셉, 강형규,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남북한 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 등이 모인 교향악단이다. “나는 음악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남북한 문제이다” 라는 정명훈 지휘자의 말은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탄생 배경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 그는 오래 전부터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무대에 관심을 보여왔다. 원 코리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되는 한국'을 표방하는 이 단체는 정명훈 음악감독의 리더십 아래 화합과 평화를 연주하기 위해 모였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서로 더 남북한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젠가 남북한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것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악장

웨인 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제 1 바이올린

이윤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악장
태선이 대전시립교향악단 제2악장
신민경 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
주연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김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사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수석
안설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
정재윤 쉰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이병희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
이혜원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소윤 KBS교향악단 단원
신동진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허준화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김기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손지연 충북도립교향악단 단원

제 2 바이올린

임가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
김수영 서울시립교향악단 차석
장해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한효 제주도립교향악단 수석
박신혜 인천시립교향악단 차석
표상화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김은근 KBS교향악단 단원
이민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박정원 KBS교향악단 단원
이지윤 발트양상블 단원
김효진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이규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황예찬 천안시립교향악단 단원
정진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단원

비올라

강윤지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수석 ◇
변정인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이기현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정수지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조윤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조재현 디토 오케스트라 부수석
유지숙 춘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이혜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임나유 KBS교향악단 단원
김지우 KBS교향악단 단원
조수영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정서영 충북도립교향악단 단원

첼로

문태국 카잘스 콩쿠르 우승 ◇
윤여훈 KBS교향악단 부수석
임재성 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
김근혜 전주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소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최민지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유소향 KBS교향악단 단원
김지현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이세인 포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조은강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더블베이스

배기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서범수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
추대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안수현	KBS교향악단 부수석
김진철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한민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사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차석
이다겸	인천시립교향악단 단원

플루트

조철희	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 ◇
한성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수석
이주형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안진희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

오보에

이미성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
이주빈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하수민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김성경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

클라리넷

조성호	강원대학교 교수 ◇
김길우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장재영	춘천시립교향악단 수석
곽지현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바순

이은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정순민	KBS교향악단 단원
황의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석
최종선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호른

이석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차혜빈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김형주	TIMF양상블 단원
최윤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트럼펫

정태진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
김승현	KBS교향악단 단원

트럼본

박성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손상우	디토 오케스트라 수석
김태훈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팀파니

윤재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타악기 차석 ◇
-----	----------------------

퍼커션

이창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차석
김승수	인천시립교향악단 차석
서유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



황수미 Sumi Hwang

소프라노 | Soprano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극장에서 활동하였다.

독일 본 오페라 극장 및 비스바덴 헤센 주립 극장, 스위스 제네바 극장, 오스트리아 테아터 안 데어 빈 등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을 하였으며 오페라 무대 뿐 아니라 콘서트, 가곡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가곡 반주자인 헬무트 도이치와 도이치 그라모폰 (DG)에서 데뷔음반 <SONGS>를 발매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주목받은 황수미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 교향악단, 상제리제 오케스트라, 앙상블 마테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펜하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솔리스트로 협연하였다.

제 1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 콘서트에서 베토벤 합창의 솔리스트로 공연하였고 유럽과 더불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연주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선정 Sun-Jung Kim

메조소프라노 | Mezzo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오페라, 오라토리오&리트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스카 & 리터 재단(Oscar-Ritter Stiftung) 과 브람스 재단(Brahms-Stiftung)의 장학생이었다.

독일 브레멘 시립극장, 카셀 시립극장, 플렌스부르크 극장, 렌스부르크 극장, 슈레스비히 극장, 함부르크 알레극장, 체코 프라하 극장 등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였으며, 함부르크, 뮌헨, 브레멘, 플렌스부르크 등에서 콘서트 및 오라토리오 공연에 출연하였다.

국내 오페라로는 국립오페라단, 시립오페라단 외 여러 단체와 함께 <카르멘><보체크><신데렐라><세빌리아의 이발사><피가로의 결혼><운명의 힘><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살로메><파르지팔><리골레토><오텔로><탄호이저> 등의 작품에서 주역으로 출연했다.

그 외에도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KBS 방송교향악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시향, 대전시향, 원주시향, 경기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를 비롯하여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모테트 합창단과 오라토리오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강요셉 Yosep Kang

테너 | Tenor

세계 최고의 테너 44인에 선정되는 등 동시대 최고의 테너 가수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강요셉은 2000년 비오티국제 성악 콩쿠르, 2002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2004년 탈리아비니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2016 오스트리아 음악극장 시상식에서 2014 그라츠극장 <윌리엄 텔>의 아르놀트역, 동양인 최초 남자 주역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리골레토><라 트라비아타><라보엠><호프만의 이야기><돈 카를로><위그노교도><가면무도회><윌리엄 텔><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빈 뮤직페라인,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BBC 프롬스, 드레스덴 프라우엔, 프린츠레겐텐플라츠 극장, 뮌헨 헤라클래스홀, 도쿄 NHK 홀 등에서 협연하였다.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비엔나 슈타츠오퍼, 파리 국립오페라, 뮌헨 슈타츠오퍼, 로마 오페라, 취리히 오페라, 시드니 오페라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원시향과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요셉은 2003년부터 도이체오퍼 베를린 전속 주역가수로 10년동안 활동하였다. 현재는 세계 최고의 매니저먼트사중 하나인 쟈스키그린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강형규 Carlo Kang

바리톤 | Baritone

경희대 음대 성악과 졸업 후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탈리아 <Maria Callas - Verdi 바리톤부문 우승>, 미국 <Operalia - Placido Domingo 2위>, 스페인 <Bilbao 1위>, <Jaume Aragall 1위>, 독일 <Competizione dell'Opera 3위>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하였다.

파르마 왕립극장 <일 트로바토레>, 부세토 극장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에 출연하며 유럽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나부코><에르나니><아틸라><리골레토><라 트라비아타><아롤도><가면무도회><운명의 힘><돈 카를로><아이다><오텔로><돈 조반니><사랑의 묘약><루치아><라 보엠><토스카><카르멘><안드레아 쉐니에> 등의 오페라에 출연하였다.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이탈리아 카타냐 벨리니극장, 제노바 왕립극장,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 피아첸자 시립극장, 모데나 시립극장, 베로나 페스티벌,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퍼, 오스트리아 그라츠, 린츠극장, 에스토니아 탈린국립극장, 프랑스 몽펠리에극장, 아르헨티나 콜론극장 등에서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제1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남자주역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경희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 중이다.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합창단으로 본격적인 합창 예술운동의 선두주자이자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 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연주회와 60여 회의기획연주, 지방연주, 해외연주,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리는 헨델, 바흐, 하이든, 멘델스존, 브람스, 칼 오르프 등 세계적인 작곡가의 합창작품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국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국 창작 합창곡 개발과 보급,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앞장서며 한국 합창음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충한

Anyang Civic Chorus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에 창단되어 130여 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그리고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뛰어난 연주와 기획, 그리고 정통합창 사운드로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얻은 안양시립합창단은 합창 애호가들로부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40여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클래식, 팝송, 가곡, 뮤지컬 등을 통해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합창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CD를 제작하였으며, 특별히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로 서울시향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Beethoven Symphony No.9 “합창”을 녹음하여 출판하였다.

그리고 세계합창연맹(IFCM)으로부터 코펜하겐 세계합창심포지움에 초대되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동양의 특이하고 환상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한국에서 열린 제10회 IFCM 세계합창심포지움에서 브람스의 ‘독일레퀴엠’을 연주하는 등 수준 높은 음악적 예술성을 전 세계 합창계에 보여주며 세계 속에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4

롯데콘서트홀 기획공연 라인업



© Emma Wernig

지브리피아노트리오 <발렌타인 콘서트>

2.14(수) 7:30PM

오르간오딧세이Ⅰ.

2.20(화) 11:30AM

양인모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3.8(금) 7:30PM

인하우스아티스트 첼리스트 한재민 <무반주 첼로 리사이틀>

3.27(수) 7:30PM

FEBRUARY - MARCH



© Davide Cerati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태수 난곡>

4.3(수) 7:30PM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4.9(화) 7:30PM

오르간 시리즈Ⅰ. 벤 판 우스텐 오르간 리사이틀

6.4(화) 7:30PM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6.19(수) - 6.20(목) 7:30PM

APRIL - JUNE



EVAN ZIMMERMAN



© Shin Joong Kim



2024

LOTTE

CONCERT

HALL

LINE UP

롯데콘서트홀·산토리홀 공동기획

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기념 첼로 페스티벌

7.3(수) - 7.5(금) 7:30PM

오르간 오딧세이 II

7.30(화) 11:30AM

2024 클래식 레볼루션

9.7(토) - 9.11(수)

JULY - SEPTEMBER



© Marco Borggreve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10.7(월) 7:30PM & 10.12(토) 5PM

인하우스 아티스트 첼리스트 한재민 <트리오 리사이틀>

10.30(수) 7:30PM

오르간 시리즈 II. <한국국제 오르간콩쿠르 워너> 이민준 오르간 리사이틀

10.31(목) 7:30PM

오르간 오딧세이 III

12.19(목) 11:30AM

정명훈 &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추후 공지

OCTOBER - DECEMBER



INMO YANG & 양인모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FESTIVAL STRINGS LUCERNE



Artistic Director
Daniel Dodds
다니엘 도즈



© Heikki Tuuli



© Fabrice Umblin

2024. 3. 8 FRI 7:30PM 롯데콘서트홀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1번 D장조, Op. 25 '고전적' |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단조, Op. 37
뒤뷔송,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프리스 IV <그래야만 한다> (한국 초연) |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C장조, K. 551 '주피터'

R석 20만원 | S석 15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요즘 직장인의 초집중 시그널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샷추가로
진-하게

제로슈거로
부담없이 달달하게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정밀화학,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코리아세븐,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롯데홈쇼핑,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에프알엘코리아, 롯데GRS, 캐논코리아주식회사, 대흥기획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